

무덤은 봉분이 현저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앞으로 ‘국’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고분군의 발견을 기대해 본다.

## 제2절 삼국 시기(4~7세기)

삼한 시기 울진의 정치체, 즉 우유(中)국은 사로국과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로국의 발전 과정에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결국 그 세력권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사료는 아니지만 『삼국사기』의 다음과 같은 기사가 참고된다.

사료 1-1. (파사이사금) 23년(102) 가을 8월에 음즙벌국(音汁伐國)과 실직곡국(悉直谷國)이 영토를 놓고 다투다가 왕에게 와서 결정해 줄 것을 청하였다. 왕이 어렵게 여기고는, “금관국(金官國)의 수로왕(首露王)이 나이가 많아 지식이 많다.”라고 하며 불러서 물어보았다. 수로왕이 의견을 내어 다툼이 된 땅을 음즙벌국에 속하게 하였다. 이에 왕이 육부(六部)에 명하여 수로왕을 만나 잔치를 베풀게 하였다. 다섯 부는 모두 이찬(伊飮)이 잔치의 주관자가 되었으나, 오직 한기부(漢祇部)만이 지위가 낮은 자로서 주관자로 삼았다. 수로가 분노하여 자신의 노복(奴僕)인 탐하리(耽下里)에게 명하여 한기부의 주관자[主] 보제(保齊)를 죽이게 하고는 돌아가 버렸다. 노복 탐하리는 음즙벌국의 왕 타추간(陁鄒干)의 집에 도망가서 의지하였다. 왕이 사람을 시켜 그 노복을 붙잡게 하였는데, 타추가 보내주지 않았다. 왕이 분노하여 군사를 일으켜 음즙벌국을 정벌하니, 그 왕이 자신의 무리와 함께 스스로 항복하였다. 실직과 압독(押督) 두 나라 왕도 와서 항복하였다.<sup>50</sup>

사료 1-2. (파사이사금 25) 가을 7월에 실직(悉直)이 반란을 일으키니, 병사를 출동시켜 토벌하여 평정하고, 남은 무리들을 남쪽 변경으로 옮기게 했다.<sup>51</sup>

이 기사에는 울진의 옛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안강에 합속되었다고 하는 음즙벌국

50. 『삼국사기』권1, 신라본기1 파사이사금 23년

二十三年，秋八月，音汁伐國與悉直谷國爭疆，詣王請決。王難之謂，“金官國首露王，年老多智識”召問之。首露立議，以所爭之地，屬音汁伐國。於是，王命六部，會饗首露王。五部皆以伊飮爲主，唯漢祇部以位卑者主之。首露怒，命奴駄下里，殺漢祇部主保齊而歸。奴逃依音汁伐主陁鄒干家。王使人索其奴，陁鄒不送。王怒，以兵伐音汁伐國，其主與衆自降。悉直·押督二國王來降。

51. 『삼국사기』권1, 신라본기1 파사이사금 25년

秋七月，悉直叛，發兵討平之，徙其餘衆於南鄧

<sup>52</sup>과 현재의 삼척에 해당하는 실직곡국<sup>53</sup> 사이의 분쟁, 그리고 이들이 신라에 편입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기사에 나오는 대로 양국이 영토를 놓고 다투었다면 당시 울진에 독자적인 정치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사료 1-1의 마지막에 음습벌국과 실직국의 왕이 신라에 항복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뒤에도 이들은 기존의 지배 질서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실직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데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신라는 이를 평정하고 남은 무리를 남쪽 변경으로 옮겼다고 한다. 이 기사에 의하면 이들이 신라에 편입되는 과정을 두 단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지배 질서를 유지한 상태에서 신라 세력권으로 편입되는 단계, 그리고 완전히 복속되는 단계이다. 물론 완전히 복속되었다고 바로 지방관을 파견해서 직접 지배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울진, 삼척의 정치체들이 점차 신라의 세력권, 영역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이 신라에 편입되는 과정은 고분 문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세기 영남 지역의 묘제는 목곽묘이며 여기에는 신라 토기 성립 이전의 고식(古式) 도질토기(陶質土器)가부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진에서 4세기의 무덤은 아직 조사된 것이 없지만 봉평리에서 4세기 중·후엽의 고식 도질토기가 출토된 것이 있다.<sup>54</sup> 이웃 군인 영덕 덕곡리유적에서는 목곽묘 6기가 발굴되었는데, 4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단경호와 대부직구호, 5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개의 경우 경주 지역의 전형적인 고식 도질토기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특징을 지닌 4세기 토기로 판단되고 있다.<sup>55</sup>

그다음 단계에 본격적인 고분과 신라 토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울진보다 북쪽의 강릉 초당동유적에서는 경주 황남동 109호분 3·4곽과 110호묘 토기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신라 토기가 출토된 바 있지만,<sup>56</sup> 울진·영덕권역에서 알려진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5세기 중엽 정도의 것이다. 영덕[영해] 괴시리고분군의 16호분이 대표적인데, 이 무덤은 경주 지역의 적석 목곽묘 양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출토 토기로 보아 5세기 중·후반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열을 이룬 고분군의 중간 지대에 있어 향후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이른 시기의 대형묘가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sup>57</sup>

52. 『삼국사기』권34, 잡지3 지리1 신라 양주 의창군

音汁火縣, 婆娑王時, 取音汁伐國置縣, 今合屬安康縣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음습벌국을 '안강 일부 및 그 이북의 신광 등과 더불어 흥해를 포함하는 포항과 그 일대의 해안 지역'에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이희준, 2007,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192~194쪽).

53. 『삼국사기』권35, 잡지4 지리2 신라 명주 삼척군

三陟郡, 本悉直國, 婆娑王世來降. 智證王六年, 梁天監四年爲州, 以異斯夫爲軍主.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四

54. 심현용, 2008, 「울진 봉평리 출토 토기 소개」『울진문화』22, 울진문화원

55. 이한상, 2009, 「영남 동해안 지역의 신라 토기문화」『4~6세기 영남 동해안 지역의 문화와 사회』, 동북아역사재단, 68~69쪽

56. 이한상, 2009, 위 논문, 68쪽

57. 이한상, 2009, 위 논문, 69쪽

울진 지역에서는 북쪽에서부터 덕천리, 봉평리, 읍남리, 매화리, 덕신리고분군 등이 알려져 있다. 읍남리고분군이 중심에 위치하며 북쪽, 즉 죽변 쪽에 봉평리고분군이 있고 그보다 약간 북쪽에 덕천리고분군이 있다. 매화리고분군과 덕신리고분군은 울진읍의 남쪽 매화면에 위치한다. 이 중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덕신리,<sup>58</sup> 덕천리,<sup>59</sup> 읍남리고분군<sup>60</sup>이다. 덕신리고분군은 대부분 수혈식석곽묘이고 조영 시기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덕천리고분군은 목곽묘, 수혈식석곽묘, 횡구식석실묘로 이루어져 있고 연대는 5세기 중엽에서 7세기 후반, 읍남리고분군은 수혈식석곽묘, 횡구식석실묘로 되어 있으며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후반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덕천리고분군과 읍남리고분군이다. 덕천리고분군 II-4지 점의 99호 횡구식석실묘에서는 금동관 편과 함께 자도(子刀)가 부착된 삼엽환두대도(三葉環頭大刀), 금제 태환이식, 유리제 경식(頸飾), 마구 등의 위세품이 세트로 출토되었다. 이것은 5세기 말 이곳에 신라의 후원을 받는 유력자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읍남리고분군에서도 토기와 함께 무기, 장신구가 출토되었다. 토기는 기본적으로 신라양식 토기 일색이며 이를 모방한 재지계 토기도 있다. 무기로는 금동제 삼엽환두대도의 장식이 12호 수혈식석곽묘, 19호 횡구식석실묘, 36호 횡구식석실묘에서 1점씩 출토되었는데 6세기로 편년된다. 장신구로는 구슬, 이식, 대금구(帶金具)가 출토되었다. 이들은 경주 지역에서 출토된 것들과 매우 유사하여 신라 중앙과 깊은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두 고분군, 혹은 고분군을 조영한 집단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덕천리에서는 금동관이 5세기 말, 6세기 후반, 7세기 후반의 3차례에 걸쳐 출토되었으며, 읍남리에서는 출토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후자에는 구릉 정상부에 직경 20m, 높이 5m가량의 대형 봉토분이 위치하며 경주 출토품과 흡사한 태환이식과 삼엽환두대도 장식이 출토되었다. 현재의 관점에서는 읍남리고분군이 울진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대 울진의 중심지는 울진읍이 아니라 죽변면 후정리에 있는 장산성이었다는 전승이 있다.<sup>61</sup> 거리나 문헌 기록을 보았을 때 양자를 일단 하나의 단위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 이들 중 누가 더 중심적이었는지, 우월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고분군의 존재는 이 지역에 상당히 유력한 세력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들이 고분을 조영할 때 일정한 법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신라의 지배 체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라는 지방관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덕천리고분군, 읍남리고분

58. 안동대학교 박물관, 2004,『울진 덕신리유적』

59. 성립문화재연구원, 2015,『울진 덕천리 신라묘군』

60. 영남문화재연구원, 2018,『울진 읍남리고분군』

61. 南錫和 編, 1939,『蔚珍郡誌』, 울진읍 성곽 장산성

“在縣北 後亭里 長坪하니 新羅朝에 築爲城邑이러니 今廢라”

군에 묻힌 재지의 유력자들을 통해 이 지역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신라가 울진 지역을 간접 지배한 5세기는 동시에 신라가 고구려에 대한 종속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위상을 확보하는 시기였다. 나물마립간(奈勿麻立干)[재위 356~402]의 등장과 전진(前秦)에 대한 사신 파견<sup>62</sup>은 이 시기 신라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그러한 견사(遣使)가 고구려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또 「광개토왕릉비문」에 의하면 400년 신라는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 왜의 침입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신라의 매금(寐錦)이 직접 조공했다고도 하였다.<sup>63</sup> 그렇지만 늘지마립간(訥祇麻立干)[재위 417~458]이 즉위하면서 이른바 나제 동맹을 맺고 고구려에 대항하기 시작하였다.

450년 무렵부터는 양국 사이에 무력 충돌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마침내 교전 상태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즉 늘지마립간 34년·장수왕 38년(450) 신라 하슬라[강릉]성주 삼직이 실직[삼척]의 들에서 사냥하는 고구려 변장을 살해하였고, 이에 고구려는 사신을 파견하여 문책하고 신라의 서쪽 변경을 침입하였다.<sup>64</sup> 이때는 신라의 사죄로 물러났지만, 454년에도 고구려가 북쪽 변경을 침입하였다.<sup>65</sup> 또 468년에는 고구려와 ‘말갈(靺鞨)<sup>66</sup>이 신라의 북쪽 변경 실직성을 공격하였으며, 같은 해 9월 신라는 니하(泥河)에 성을 쌓은 것으로 되어 있다.<sup>67</sup>

이처럼 고구려의 공격은 하슬라[강릉]을 뛰어넘어 실직[삼척]을 향해 이루어졌는데, 고구려의 경계가 동해안 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한강 상류, 지금의 영월, 정선 지역까지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이 태백산맥을 넘는 교통로를 따라 동해안 방면을 공격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과 관련된 지명이 바로 니하(泥河)이다. 기존의 니하에 대한 견해는 크게 강릉 일대설과 남한강 상류설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에는 남한강 상류로 보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sup>68</sup> 신라는 니하에 축성하여 이를 방어했는데, 본명이 임매현인 정선현의 고성리산성, 속제현[본명 속토현]의 정선 임하면 송계리산성, 죽령현[본명 죽현현, 대재]인 삼척 하장면 숙암리산성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62.『삼국사기』권3, 신라본기3 나물이사금 26년(381)

二十六年，春夏旱，年荒民飢。遣衛頭入苻秦，貢方物。苻堅問衛頭曰，“卿言海東之事，與古不同，何耶？”答曰，“亦猶中國，時代變革，名號改易，今焉得同”

63.「광개토왕릉비문」

昔新羅寐錦未有身來論事，□國罃上廣開土境好太王□□□□寐錦□□僕勾□□□□朝貢

64.『삼국사기』권3, 신라본기3 늘기마립간 34년(450)

三十四年，秋七月，高句麗邊將獵於悉直之原，何瑟羅城主三直出兵，掩殺之。麗王聞之怒，使來告曰，“孤與大王修好至歡也，今出兵殺我邊將，是何義耶。”乃興師侵我西邊。王卑辭謝之，乃歸

65.『삼국사기』권3, 신라본기3 늘기마립간 38년(454)

八月，高句麗侵北邊

66. 이때의 ‘말갈’은 ‘위말갈(爲靺鞨)’로 영서나 영동 방면의 예족(濶族)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與猶堂全書』6 地理集 第2卷 疆域考2 靺鞨考).

67.『삼국사기』권3, 신라본기3 자비마립간 11년(468)

十一年，春，高句麗與靺鞨襲北邊悉直城。秋九月，徵何瑟羅人年十五已上，築城於泥河[泥河一名泥川]

68. 홍영호, 2010, 「『三國史記』所載 泥河의 위치 비정」『韓國史研究』150, 한국사연구회

&lt;표 17&gt; 강원 영서 지역의 명주 소속 군현

소속 State	『삼국사기』 자리지			현재 위치	대응 성지	성지 위치	성지 현황	인접 고분군	참고 문헌
	군현명	本	今 (고려)						
溟州	(溟州) 旌善縣	仍買縣	旌善縣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산성	정선읍 애산리	413m 산 테뫼식, 석축, 둘레 360m		강릉대학교 박물관, 1996, 『정선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77~179쪽
	(溟州) 棟隄縣	束吐縣	未詳		cf. 고성리 산성	신동읍 고성리· 덕천리	425m 산 테뫼식, 석축, 둘레 687m, 석축 온전	봉산리 고분군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1997, 『정선 고성리 산성과 송계리 산성 및 고분군』
	奈城郡	奈生郡	寧越郡	영월군 영월읍	왕검성	영월읍 정양리· 연하리	정양산(564m) 포곡식, 내성 둘레 1060m, 석축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0, 『영월 왕검성』
	(奈城郡) 子春縣	乙阿旦 縣	永春縣	단양군 영춘면	성산고성 (온달산성)	영춘면 하리	554m 산 테뫼식, 둘레 682m, 석축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1989, 『온달산성』
	(奈城郡) 白鳥縣	郁烏縣	平昌縣	평창군 평창읍	노성산성	평창읍 하리	노산 테뫼식, 둘레 414m, 석축		강원대학교 박물관, 1987, 『평창군의 역사와 유적』, 49~50쪽
	(奈城郡) 酒泉縣	酒淵縣	酒泉縣	영월군 주천면	?				
	(三陟郡) 竹嶺縣	竹峴縣	未詳	삼척시 하장면 (냇재)	숙암리 산성	삼척시 하장면 숙암리	테뫼식		洪永鎬, 2004, 『삼척시 하장면 숙암리 산성의 발견과 역사성 검토』『江原史學』 19:20

475년 고구려는 백제 한성을 함락시켰는데, 481년에는 신라 미질부[포항 흥해]까지 진군해온 일이 있었다. 이때 어느 길을 경유했는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다.

사료 2. (소지마립간) 3년(481) … 3월에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북쪽 변경에 쳐들어 와 호명성(狐鳴城) 등 7성을 빼앗고 또 미질부(彌秩夫)에 진군하였다. 우리 군사가 백제·가야의 구원병과 함께 여러 길로 나누어서 그들을 막았다. 적이 패하여 물러가므로

뒤쫓아가 니하(泥河)의 서쪽에서 공격하여 깨뜨렸는데 천여 명을 목베었다.<sup>69</sup>

여기에서 호명성은 청송, 영덕 방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sup>70</sup> 만약 그렇게 볼 수 있다면, 태백산맥, 대체로 죽령을 넘어 영주, 안동을 지나 청송, 영덕을 거쳐 포항까지 내려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공격이 장기간 점령으로 이어지지는 못했고, 니하, 즉 남한강 상류를 통해 퇴각했다고 한다. 이때 7성을 점령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진군로를 통해 퇴각했을 가능성이 큰데, 니하 서쪽, 즉 남한강 상류 중에서도 단양이나 제천 방면에서 깨뜨린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것은 대체적인 추정에 불과할 뿐이다. 분명한 것은 울진 지역이 고구려 공격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5세기 말에 이르러 우산성(牛山城) 전투<sup>71</sup>를 마지막으로 고구려-신라 사이의 직접 대립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우산성은 니하와 관련이 있으면서 백제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 대체로 충주 지역에 비정할 수 있다.<sup>72</sup> 신라가 남한강 상류역을 확보한 대신 고구려가 우산성을 차지하면서 양국이 충주를 경계로 잠정 화약을 맺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sup>73</sup> 그리고 504년(지증마립간 5) 삼척 원덕에 비정되는 파리성<sup>74</sup>과 흥해의 미실성 등 12성을 축조하였는데,<sup>75</sup> 대체로 이 무렵부터 울진을 비롯한 동해안 방면은 신라의 영역으로 안정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시기 신라는 이러한 영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였다.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알 수 있는 통일 신라의 지방 제도는 주(州)-군(郡)-현(縣)의 3단계로 되어 있었으며, 신라본기에서는 505년(지증마립간 6) 국내의 주·군·현을 친히 정했다고 했지만,<sup>76</sup> 사실 이러한 제도는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었다.

5세기 말 6세기 초 신라는 거점이 될 만한 주요 성(城)-촌(村)에 도사(道使)라고 하는 지방관을 파견하였고, 점차 영역을 군(郡)으로 편성해 나갔다. 또 중앙 군단을 지방에 주둔시켰

69. 『삼국사기』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3년(481)

三月, 高句麗與靺鞨入北邊, 取狐鳴等七城, 又進軍於彌秩夫. 我軍與百濟·加耶援兵, 分道禦之, 賊敗退, 追擊破之泥河西, 斬首千餘級  
70. 장창은, 2008. 『신라 상고기 정치변동과 고구려 관계』, 신서원

71. 『삼국사기』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18년(496)

秋七月, 高句麗來攻牛山城. 將軍實竹出擊泥河上, 破之

『삼국사기』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19년(497)

八月, 高句麗攻陷牛山城

72. 津田左右吉, 1913 「好太王征服地域考」, 『朝鮮歷史地理』一; 1964 『滿鮮歷史地理研究』1-朝鮮歷史地理, 岩波書店, 57~59쪽

73. 박성현, 2010, 「6세기 초 고구려-신라의 화약과 정계」, 『역사와 현실』76, 한국역사연구회

74. 『삼국사기』권35, 잡지4 지리2 신라 명주 삼척군

海利縣, 本高句麗波利縣, 景德王改名. 今未詳

75. 『삼국사기』권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5년(504)

秋九月, 徵役夫, 築波里·彌實珍德·骨火等十二城

76. 『삼국사기』권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6년(505)

六年, 春二月, 王親定國內州郡縣

는데, 이러한 군단의 영(營)을 정(停)이라고 하였다. 지증마립간 6년(505) 실직주 설치와 군주(軍主) 임명 기사<sup>77</sup>는 바로 실직에 정을 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림 64> 울진 봉평리 신라비

특히 도사와 군주의 존재는 1988년 울진 죽변면 봉평리 118번지에서 발견된 울진 봉평리 신라비[이하 봉평리비]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비는 갑진년(524) 탁부(ಡ부) 모즉지매금왕[법 흥왕], 사탁부(沙ಡ부) 사부지갈문왕[입종갈문왕] 등이 교(敎)한 일을 기록한 것으로, 잘 보이지 않는 글자가 있고 문맥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거별모라 남미지[촌]에서 대군을 동원할 정도의 큰 사고가 있었고 그에 대해 책임자들을 처벌한 내용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거별모라는 바로 신라가 울진 지역에서 거점으로 삼은 곳의 이름인데, 앞에서 이야기한 우진야 혹은 파차와 같은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지명인지 단정하기 쉽지 않지만, 그 위치로 보아 우진야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생각된다. 남미지는 거별모라의 관할 하에 있었던 하나의 촌으로 볼 수 있으며, 비가 세워진 곳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77. 『삼국사기』권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6년(505)  
置悉直州, 以異斯夫爲軍主. 軍主之名始於此

&lt;표 18&gt; 봉평리비에 나타난 왕경 6부인

직책	부명	인명	관등
教를 내림	喙部	牟卽智	寐錦王
	沙喙部	徙夫智	葛文王
	本波部	□夫智	干支
	岑喙部	美昕智	干支
	沙喙部	而粘智	太阿干支
		吉先智	阿干支
		一毒夫智	一吉干支
教를 내림	喙(部)	勿力智	一吉干支
		慎宍智	居伐干支
		一夫智	太奈麻
		一尒智	太奈麻
		牟心智	奈麻
	沙喙部	十斯智	奈麻
		悉尓智	奈麻
處事大人	喙部	內沙智	奈麻
	沙喙部	一登智	奈麻
		男次	邪足智
	喙部	比須婁	邪足智
		夲洗	小舍帝智
居伐牟羅道使		烏婁次	小烏帝智
悉支道使	喙部	尒夫智	奈麻
悉支軍主		牟珍斯利公	吉之智
書人	沙喙部	若文	吉之智
	喙部	述刀	小烏帝智
新人	沙喙部	牟利智	小烏帝智
立石碑人	喙部	(博士)	

이 비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당시의 지방 편제 및 통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 일대에 파견된 지방관인 거별모라도사, 실지도사, 실지군주가 나타나 있다. 먼저 실지군주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실직에 주둔한 군단의장을 말한다. 지증마립간 13년(512)에는 이

사부가 실직[주]군주가 아닌 하슬라[주]군주로서 우산국을 정벌했다고 되어 있는데,<sup>78</sup> 단순 오류일 가능성도 있지만, 군영, 즉 정의 이전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정은 결국 통일기의 주치(州治)로 발전하는데, 그것과 달리 이 시기의 정은 필요에 따라 쉽게 이전할 수 있는 것 이었다. 이때 군주가 얼마나 광역 행정관으로서의 면모를 갖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울진 지역의 사건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거별모라도사와 실지도사가 나타나 있다. 금석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사는 포항 중성리 신라비의 ‘나소독지도사(奈蘇毒只道使)’와 포항 냉수리 신라비의 ‘탐수도사(耽須道使)’가 있지만, 나소독지나 탐수가 거별모라나 실지와 같은 분명한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신라 중고기 도사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바로 경주 남산신성비(591)에 나오는 것인데, 그에 따르면 후대에 군치 및 현이 되는 군의 몇몇 주요 성·촌에 도사가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것과 가장 가까운 모습의 도사가 524년 봉평리비에도 나타나 있는 것이다. 실지가 삼척이라면 거별모라는 울진, 즉 우진야의 다른 이름이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만 이 비에는 군의 존재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고, 이 시기 지방민의 존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다.

<표 19> 봉평리비에 나타난 지방민

소속 지명	(직명) 인명	관등(위위)	처벌
居伐牟羅	尼牟利	一伐	杖 60
	弥宜智	波旦	
	組只斯利	一金智	
阿大兮村	(使人) 奈尓利		
葛尸条村	(使人) 奈亦利	居匱(伐)尺	毘(杖) 100
男弥只村	(使人) 翼匱		
	於卽斤利		杖 100

봉평리비에 의하면 거별모라와 그 관할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아대해촌, 갈시조촌, 남미지촌의 유력자들에게 일정한 처벌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표 19>와 같다. 이것을 통해 거별모라 관할 하에 있었던 자연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구조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먼저 도사가 파견된 거별모라에는 외위(外位)를 소지한 유력자들이 3명 정도 있었

78. 『삼국사기』권44, 열전4 이사부  
至十三年壬辰, 爲阿瑟羅州軍主, 謀并于山國

다. 또 다른 자연촌에는 사인(使人)이 있어 이들이 그 촌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외위가 있는 자도 있고<sup>79</sup> 그렇지 않은 자도 있다. 마지막 어즉근리의 경우 굳이 구분해서 장 100을 기록한 것을 보면, 이 사건에서 잘못을 저지른 개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이러한 명단을 통해 524년 현 울진 지역에는 거벌모라에 도사가 파견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외위를 가진 유력인들이 있었으며, 또 기타 자연촌에는 사인의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금석문에서 군(郡)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6세기 중엽 경주 명활[산]성작성비(551), 그리고 창녕 진흥왕적경비(561)이다. 특히 후자에는 바로 울진 지역 군의 존재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다. <표 20>는 비를 세울 때 진흥왕을 수행한 관인의 명단 중에서 4방 군주(四方軍主)와 행사대등(行使大等)을 정리한 것이다.

<표 20> 「창녕비」에 나오는 4방 군주와 (행)사대등

직명		부명	인명	관등
四方軍主	比子伐軍主	沙喙	登□□智	沙尺干
	漢城軍主	喙	竹夫智	沙尺干
	碑利城軍主	喙	福等智	沙尺干
	甘文城軍主	沙喙	心麥夫智	及尺干
(行)使大等	上州行使大等	沙喙	宿欣智	及尺干
		喙	次叱智	奈末
	下州行使大等	沙喙	春夫智	大奈末
		喙	就舜智	大舍
	于抽悉直河西阿郡使大等	喙	比戶智	大奈末
		沙喙	須兵夫智	奈末

위 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4방 군주와 상주(上州) 및 하주(下州)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앞에서 정과 군주의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대체로 6세기 중엽 상주(上州)와 하주(下州)가 설정되면서 정이 이러한 광역 행정구역과 결합하게 되었다. 상주와 하주는 대체로 영남 지역에, 팔공산 줄기를 경계로 하여 설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상주에는 525년 설치된 사벌정[현 상주]이 있었고, 하주에는 555년 비사벌정[현 창녕]이 두어졌다.<sup>80</sup> 또

79. '거벌척(居伐尺)'이라는 외위는 『삼국사기』 직관지에는 나오지 않지만 초기 외위의 하나로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윤선태, 2016, 「新羅의 초기 外位體系와 '及伐尺'」『東國史學』61, 동국역사문화연구소).

80. 『삼국사기』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6년(555)

十六年, 春正月, 置完山州於比斯伐

새로 획득한 한강 유역을 신주(新州)로 편제하였다. 창녕비(561)에서는 바로 4방 군주의 주둔지와 그에 의하여 확보되는 4개의 광역 행정구역[상주(上州), 하주(下州), 신주(新州), 동해안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의 경우 상주, 하주, 신주와 같은 명칭이 부여되지 않았고, 주요 군들을 연칭(連稱)하였는데 그중 하나로 우추군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이때 군은 도사가 파견된 거점 성·촌이 관할하는 구역, 그것을 행정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을 몇 개 정도 묶어서 일정한 영역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혹은 기존 ‘국’의 영역을 계승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군의 영역은 『삼국사기』 지리지를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 사실 삼한 시기 ‘국’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알기가 어렵다. 또 앞에서 언급 했듯이 대국과 소국은 많으면 8배 정도의 규모 차이가 있었다. 군의 편성은 자연 지형이나 기존의 정치적 관계 등을 고려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신라의 입장에서 편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신라가 이처럼 영역을 군으로 편제한 것은 특히 인력의 징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역역(力役)의 징발과 관련이 있는 명활산성작성비나 남산신성비에 군의 존재가 부각되어 있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거점 성·촌에는 도사를 파견했다고 했는데, 군에 파견한 지방관은 당주(幢主)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주는 그 지역에서 징발한 민으로 구성된 군단을 이끈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처럼 일정한 인력을 징발할 수 있는 단위가 요구되었을 것이다. 6세기 중엽 ‘우추군’은 바로 이러한 단위였다. 그리고 그 내부에는 우추촌 내지 거별모라와 나중에 해곡현이 되는 파차의 2개 거점이 존재했을 것이다.

정[주치]은 전략적인 필요에 따라서 종종 이동했지만, 상주, 하주, 신주, 동해안 지역과 같은 광역 구역의 범위는 대체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창녕비 단계에 동해안 방면의 정은 비 열성[북한 강원도 안변]에 있었는데, 568년(진흥왕 29) 이것을 달흘[북한 강원도 고성]로 후퇴시킨다.<sup>81</sup> 그 뒤 한동안 동해안 방면의 동향이 잘 나타나지 않다가 7세기에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사료 3-1. [선덕왕] 8년(639) 봄 2월에 하슬라주(何瑟羅州)를 북소경(北小京)으로 삼고, 사찬(沙瀆) 진주(眞珠)에게 명하여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

사료 3-2. [태종무열왕 2년(655) 봄 1월] 고구려가 백제와 말갈과 더불어 군사를 연합하여 우리의 북쪽 변경을 침략하여 33성을 탈취하였다. 왕이 당(唐)나라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사료 3-3. [태종무열왕 5년(658)] 3월에 왕은 하슬라(何瑟羅)의 땅이 말갈(靺鞨)과

81. 『삼국사기』권4, 신라본기4 진흥왕 29년(568)  
冬十月, 廢北漢山州, 置南川州. 又廢比列忽州, 置達忽州

맞닿아 있으므로 사람들이 편안치 못하다고 여기고 경(京)을 폐지하여 주(州)로 삼고 도독(都督)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또 실직(悉直)을 북진(北鎮)으로 삼았다.

사료 3-1에는 639년(선덕왕 8) 하슬라주를 북소경으로 삼았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 하슬라가 주, 즉 정의 소재지가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달홀에 있던 것이 어느 시점에 하슬라로 옮겨온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또 하슬라에 북소경을 설치하면서 정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혹시 그냥 하슬라를 하슬라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면, 정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북소경이 두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 때의 소경은 세 번째로 설치된 것으로 주로 왕경인들이 나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런데 사료 3-2에 의하면 655년(태종무열왕 2) 고구려가 백제, 말갈군과 함께 신라의 북쪽 경계를 공격하여 33성을 탈취했다고 한다. 이때의 말같은 앞에서 이야기한 ‘위말갈(僞靺鞨)’이 아니라 중국 역사책에 기록된 것과 같은 실제 말갈로 추정된다. 또 여기에서 북쪽 경계는 서북 경계보다는 동북 경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당시 신라의 서북 경계는 임진강 선이었는데 그 뒤에도 이러한 경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동북 경계였다고 하면 백제군이 실제로 이 지역을 함께 공격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고구려와 말갈이 신라의 동북에서 33성을 탈취했다면 신라의 동북 경계가 크게 남하했을 것이다.

사료 3-3에서 북소경을 폐지하고 하슬라에 정을 둔 것은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 직관지에서는 이때 실직의 정을 하슬라로 옮긴 것이라고 하였지만, 당시 정황으로 보았을 때 정 역시 전방으로부터 후퇴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실직, 즉 삼척을 북진으로 삼았다고 했는데, 당시 신라의 지방 제도에서 진(鎮)이라는 단위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진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북소경을 실직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동해안 방면의 광역 행정구역과 하슬라정은 통일 후까지 지속된다. 그것이 곧 하슬라주(何瑟羅州)와 그 주치가 되는 것이다. 다만 동해안에서 안변 지역은 춘천에 중심을 둔 우수주(牛首州)로 편제되는데, 그것은 안변 지역의 회복이 우수정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 제3절 통일 신라 시기

당(唐)과 동맹한 신라는 660년 백제를 공격해 멸망시키고 668년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나당 연합군의 백제 공격은 울진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지만, 668년에는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668년 6월 문무왕은 고구려를 공격하는 장수들을 임명했는데, 파